

통풍약 '벤즈브로마론' 부작용 6명 사망

日서, 170여명이 간장애 유발

대표적 통풍치료제인 「벤즈브로마론」(성분명)을 복용한 일본인 환자 최소한 6명이 간염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8일 보도했다.

제약회사 집계에 따르면 이 약을 복용한 후 170명이 간(肝)장애를 일으켰으며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환자도 99명에 달했다.

이중 6명은 간장애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극중간염으

로 사망했다. 사망자는 벤즈브로마론을 3개월-1년반 계속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40대의 남성 50대의 여성 각 1명은 간검사에서 이상수치가 나왔는데도 복용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제약회사에 대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의사들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지시하는 한편 환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간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 약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에도 부작용으로 환자 8명이 극중간염을 일으켜 6명이 사망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후생성은 ▲복용할 경우 적어도 6개월간은 정기적으로 간기능검사를 받을 것 ▲환자에게 간장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설명할 것 ▲간장애가 있는 환자는 복용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안전정보」를 발표했다.

카레, 치매 치료에 효과 뇌세포 파괴 「베타 아밀로이드」분해시켜

카레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의 그레고리 콜 박사는 과학전문지 「생화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카레의 노란색 색소 성분인 쿠르쿠민(curcumin)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 축적되는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콜 박사는 알츠하이머병과 비슷한 상황을 유발시킨 쥐에 쿠르쿠민을 말초혈관을 통해 주입한 결과 이 성분이 혈뇌장벽(blood-brain barrier)

을 넘어 뇌로 들어가 뇌세포를 파괴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고 이 단백질 플라크의 형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콜 박사는 쿠르쿠민은 인도의 전통의학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으로 사용되어왔다고 밝히고 이 물질은 알츠하이머병, 암, 심장병 같은 산화스트레스와 염증이 관련된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최근의 연구 결과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쥐실험 결과는 앞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콜 박사는 덧붙였다.

바이엘 '레비트라' 단독 판매 선언



바이엘 헬스케어(BHC)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양사의 레비트라 공동 판매

계약을 종결하고,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바이엘이 레비트라를 단독 판매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합의는 현재 바이엘-GSK가 레비트라를 공동 판매하고 있는 유럽 대부분 지역 및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캐나다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양사가 레비트라를 공동 판매하면서 제품 배급만 쉐링 프라우를 통해 하게 되며, 이탈리아 역시 바이엘은 「레비트라」라는 제품명으로, GSK는 「비반자」라는 제품명으로 양사에서 레비트라를 공동 판매하게 된다.

또한 현재 GSK가 독점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번 계약에 따르면 바이엘은 레비트라와 공동 판매권을 바이엘로 이관하는 조건으로 GSK에 2억 8백만 유로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9천만 유로는 지불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억1천8백만 유로는 2005년 1/4분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바이엘 단독으로 레비트라 영업 및 마케팅을 관장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유럽, 남미,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바이엘 헬스케어의 전문의약품 부문에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바이엘 헬스케어는 레비트라를 포함한 1차 진료 약제군의 잠재성을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바이엘 헬스케어 제약부문 회장인 볼프강 플리쉬케는 언급했다.

GSK의 제약부문 사장인 데이비드 스타우트는 「이번 결정은 GSK와 바이엘이 레비트라와 극대화된 잠재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며 「GSK는 미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그 외 26개 지역에서 레비트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속시킬 예정이며, 바이엘과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성공을 위하여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바이엘, 로슈 일반의약품 사업부 인수 완료

바이엘은 로슈의 일반의약품 사업부의 인수 작업을 완료하여 2005년 1월부터 로슈의 일반의약품 사업부가 바이엘의 일반의약품 사업부로 완전 통합됨으로써 전 세계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인수에는 전세계 로슈 일반의약품 사업이 해당되며 Grenzach(독일), Gaillard(프랑스), Pilar(아르헨티나), Casablanca(모로코), 그리고 Jakarta(인도네시아)에 위치한 5개의 로슈 일반의약품 생산 시설도 포함된다.

이번 인수 합병으로 인해 바이엘은 이제 일반의약품 사업 부문에서 세계 상위 3위권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야심찬 포부이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일반의약품 사업부의 총 책임자인 Mr. Gary S. Balkema가 설명했다.

또한 「합병을 통해 이제 하나의 회

사로서, 주요 일반 의약품 부문에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되는 제품들 「아스피린, 얼리브, 레니, 알카셀체, 비판텐, 카네스텐, 수프라딘 및 윈어데이등」을 보유하게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제 바이엘 헬스케어 일반의약품 사업부는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활동하게 되며,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 인수 합병을 계기로 바이엘 헬스케어 일반 의약품 사업부는 앞으로, 업계 시장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앞지르면서 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두 조직의 통합은 각 각의 사업부서를 단순히 합한 것 이상의 보다 성공적인 사업체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방/처방간 교제, 인허가, 합작 사업들과 같은 미래의 일반의약품 사업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위한 최상의 파트너가 되려는 이유입니다.」라고 Mr. Balkema는 덧붙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장 **李吉女**

- | | | |
|-----------------|----------------|--------------------|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 가천길대학 | 재단법인 가천문화재단 |
| 가천의대길병원 | 신명여자고등학교 | 가천박물관 |
| 동인천길병원 | 가천인력개발원 | 사회복지법인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
| 남동길병원 · 산업의학연구소 | 학교법인 경원학원 | 사단법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
| 양평길병원 | 경원대학교 | 경인일보사 |
| 철원길병원 | 경원전문대학 | |
| 학교법인 가천학원 | 경원대학교부속 서울한방병원 | 외교직원일동 |
| 가천의과대학교 | 경원인천한방병원 | |